

# 광주·전남, 오늘 당선인 사전간담회… 통합의회 막바지 준비

통합특별시의회 운영방향 논의  
청사 배치·원 구성 등 이목집중  
내달 1일 개원… “안정적 출범 만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내달 1일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 사전간담회를 예고하는 등 통합의회 출범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의회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남 영암의 한 호텔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사전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대 통합특별시의원 91명을 비롯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사무처·광주시·전남도·전남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초대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주요 현안과 행정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첫 공식 논의의 장으로, 당선인 상견례를 시작으로 통합의회 운영에 필요한 의회 자치법규, 주요 현안, 행정 준비 상황 등이 논의된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전경

양 의회사무처는 통합의회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설명하고 집행부와 교육청도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필수 조례와 행정 준비 상황을 보고한다.

당선인들은 당일 오후 2시 50분부터 별도 의원 간담회를 열어 초대 통합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의회 주청사 위치, 상임위원회 배분, 상임위원 구성 방식, 의원 사무실 배치 등 출범 초기 의회 운영의 뼈대를 결정할 핵심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청사 문제다. 의회 청사 배치는 집행부 주청사 문제와 맞

물려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의 상징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초대 통합특별시의회 원 구성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회 운영 주도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당선인 간 조율이 불가피하다. 특히 6·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91석 중 83석, 91.2%를 차지하면서 원 구성 논의에서도 민주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등 소수 정당의 참여 폭을 어떻게 보장할 지도 초대 의회의 협치 수준을 가늠할 변수로 꼽힌다.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선거는 모두 70개 선거구에서 치러졌다. 의원 정수는 지역구 79명과 비례대표 12명 등 모두 91명이다.

선거 결과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79석 중 75석을 차지했고, 진보당은 4석을 얻었다. 비례대표 12석은 민주당 8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진보당 1석으로 배분됐다. 당선인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통합의회 출범에 따른 쟁점과 과제를 공유하고 초대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내달 1일 개원과 함께 첫 임시회를 열고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시·도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선인들에게 각종 의회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통합의회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 지역 이모저모

### 부산시

#### ‘디지털대전환 포럼’ 개최

부산시는 9일 오후 1시 해운대구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에서 ‘디지털대전환(DX·AX)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하는 방안을 주제로 ▲문서 데이터의 자산화 ▲물리적 환경의 데이터 연결 ▲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 ▲업무 데이터 혁신과 대응 ▲정부 데이터 활용 지원 등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빅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대전환에 관심 있는 시민과 기업 관계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 전주시, ‘전주 심야극장’ 운영

전북 전주시는 11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밤 전주한옥마을에서 영화와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 ‘전주 심야극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한옥마을을 트래디셔널에서 열리는 전주 심야극장은 캠핑장 컨셉으로 꾸며진 한옥 공간에서 영화 관람과 미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시는 매일 영화의 배경과 분위기, 스토리에 맞춘 음식 메뉴를 구성해 영화와 미식을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 경산문화관광재단

#### 27일 ‘경산 카페 축제’ 개막

경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경산 남천 둔치와 지역 카페 20곳에서 ‘2026 경산 카페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지역 카페와 경산 특산물인 신비복숭아를 연계해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선보이는 행사로 마련된다. 행사장에서는 신비복숭아 직판장과 시식 코너도 함께 운영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다.

조현일 경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경산의 매력을 담은 카페 축제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안동시·김해시, 교류사업 본격 추진

20일 첫 교류공연 ‘당신이 좋아’

경북 안동시와 경남 김해시가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지난해 김해문화의전당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전문예술인 공연 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연단체들이 타 지역 공연장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해 활동 영역을 넓히고 공연 유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역 예술단체는 상대 지역 공연장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새로운 관객층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 교류 공연은 20일 오후 5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에서 열린다. 김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단 이루어가 음악극 ‘당신이 좋아’를 무대에 올린다.

‘당신이 좋아’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사랑, 이웃 간의 관계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일상 속 소소한 행복과 가족 이야기를 음악과 연극으로 풀어낸 음악극이다.

교류 사업 일환으로 안동 지역 공연단체도 김해 무대에 오른다. 극단안동은 10월 31일 오후 3시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에서 무대에 공연 ‘필진이 온다’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연 교류를 넘어 문화예술 교육 분야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과 연계한 여름 합동캠프와 연말 합동 정기연주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동과 김해 지역 공연예술단체들이 보다 다양한 무대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 부산시, BTS 공연주간 대규모 할인 행사

내일부터 ‘부산 빅세일 주간’ 운영

부산시는 오는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산 빅세일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연 관람객의 소비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는 10~16일까지 550개 소상공인 점포와 9개 대형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민간참여형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점포 이용 시 동백전 추가 캐시백 2%를 제공하며 자체 할인과 사은품 증정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해리단길과 전포사잇길, 부산대 상권, 부산진시장 등 주요 상권과 롯데백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북도, ‘경북 관광페스타 in 서울’ 성료

경북도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6 경북 관광페스타 in 서울-경북으로 ON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 22개 시·군의 축제와 관광자원을 수도권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와 국악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장에는 각 시·군 관광홍보관과 체험부스가 운영됐으며, 청송사과축제와 구미라면축제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신라 한복 입어보기, 한지 전통등 만들기, 전통주 테이스팅 클래스 등 체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 출신 공연팀과 K-POP 커버댄스 무대도 마련돼 현장에 찾은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6 경북 관광페스타 in 서울-경북으로 ON나!’ 행사장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특산물 시음·시식 행사에서는 안동 참마 보리빵, 영천 사인머스켓빵, 경주 찰보리빵 등 지역 먹거리가 소개됐으며, 특산물 경매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또 경주 APEC 정상회의 유치 성과를 알리는 POST-APEC 레거시 전시관과 신라금관 특별 전시, 각종 참여형 이벤트가 운영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 부산시, 새마을운동 가치·공동체 정신 기려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개최

부산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6주년과 제16회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는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근면·자조·협동을 기치로 출범한 지역 사회 개발 운동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새마을회가 주최·주관했다.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시민과 공유하고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넓히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백옥자 부산시새마을회장을 비롯해 새마을가족과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했고,

시 주요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연 뒤 기념식, 시민 참여 프로그램, 문화 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지역 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에 힘써 온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는 시상도 진행됐다. 공적이 두드러진 유공자에게는 부산시장 표창이 주어졌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다채로웠다. 백일장과 사생대회, 오행시 행사가 마련됐고, 청년새마을회원들의 플래시몹 공연과 ‘어울림 골든벨’, ‘세대 공감 콘서트’ 등 남녀노소가 어울리는 무대가 펼쳐졌다.

/부산=이도식 기자